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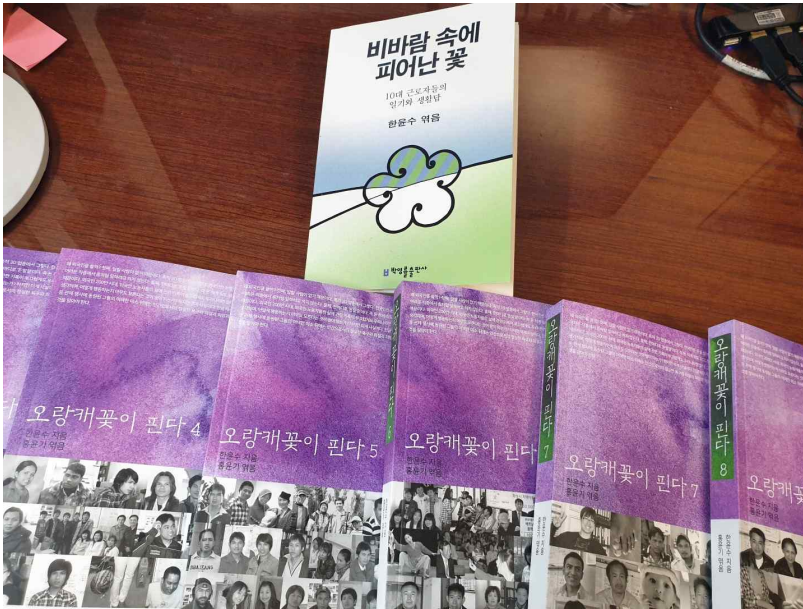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신림겨레티아학모임·박영률출판사 & 홍윤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

2023년 2월 20일(월) 오후3시·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한윤수 지음·홍윤기 엮음, 『오랑캐꽃이 핀다』 1~9권 (박영률출판사, 2023. 2.)

한윤수 엮음, 『비바람 속에 핀 꽃』 (청년사, 1980. 1. ; 복각판, 202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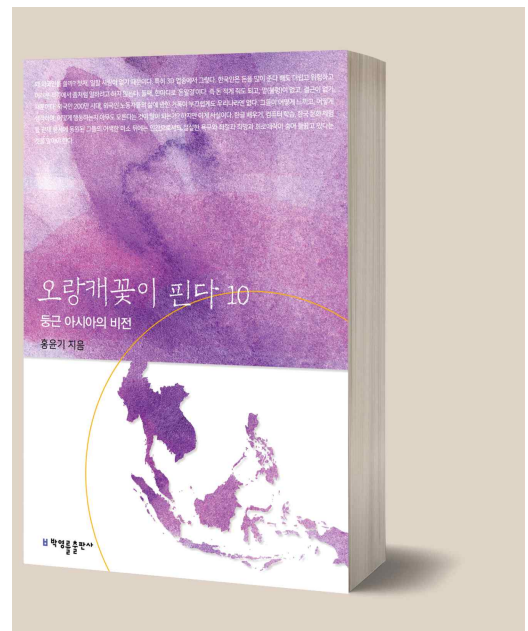
홍윤기 지음, 『동근아시아의 꿈, 오랑캐꽃이 핀다10』 (박영률출판사, 2023. 2.)

이주 노동자의 삶을 밀도 있게 기록한 책, 전 세계 역사상 처음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 한윤수 목사가 쓴 눈물과 감동의 ‘리얼 드라마’

“때리기만 해요?”

“아뇨. 엉덩이도 만져요.”

20대 필리핀 여성이 이 책의 저자 한윤수 목사에게 찾아와 털어놓은 말이다. 스리랑카에서 온 불량카를 통해 차별받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촌철살인한 “사장님 나빠요”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끈 지 20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일러두기

- 이 책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권은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의 상담 사례이고, 10권에는 홍윤기 교수가 쓴 해설과 한윤수 소장이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를 수록했습니다.
-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규범력에 상응하는 헌법 현실의 창출을 담보하는 헌법 교육/민주 시민 교육의 철학적 근거 정립"에 대한 한국연구재단(NRF)의 2018년도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과제 번호 2018S1A5A2A01039624) 역은이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가 수행하는 연구의 한 성과물입니다.

차례

'오랑캐꽃' 꽃말의 새 결 ... 9

'오랑캐꽃'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한윤수 소장 필생의 문제가 되었는가? ... 23

- 꽃을 피우기 전에 ... 26
- '꽃'을 피우다 ... 31
- 그 자신의 비바람을 헤치면서 도달한 길 ... 56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을 '오랑캐꽃'으로 다시 만나다 ... 67

- 5만 년 만의 재회 ... 70
- 인간의 도리 ... 83
-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 104
- 아시아의 평화(平和) ... 120

우리 안의 오랑캐꽃들과 같이 사는 법 ... 152

'동근 아시아'의 구상 또는 '정의감'에 바탕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 의식'과 '세계시민적 휴머니즘' ... 162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최초의 진실 기록**

부끄러운 자화상,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의 역사가 생생한 삶의 기록물로 출간됐다.

박영률출판사가 2월 20일 출간하는 《오랑캐꽃이 핀다》는 '코리안드림'의 꿈을 안고 이 땅을 찾은 이주 노동자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2007년부터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운영해 온 한윤수 목사가 상담 일지를 토대로 한 언론과 센터 블로그에 10년 동안 연재한 글을 모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인 한 목사는 월급 떼인 이야기, 퇴직금 못 받은 이야기, 폭행당한 이야기, 산재 이야기, 부당 해고 이야기는 물론 소소한 생활 이야기까지 센터를 거쳐 간 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다. 치열하고 처절한 삶의 대서사시답게 모두 10권의 책으로 엮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이처럼 밀도 있게 기록한 책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우리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최초의 진실 기록이자 눈물과 감동의 리얼 드라마다.

척박한 땅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아 아름답게 꽃피우는 '오랑캐꽃'. 제비꽃의 다른 이름인 오랑캐꽃은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한국 경제를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징한다.

“캄보디아 여성 들이 와서 운다. A시의 농장에서 일하는데, 농장 주인이 취권(醉拳) 흥내를 낸다. 여자들 방에 들어와 옷 갈아입는 건 예사고 술만 들어가면 ‘까오!’ 하며 취한 척 끌어안는다. ... (중략) 몸이 아파서 ‘쉬게 해 주세요’라고 사정해도, 방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 아파도 밖에서 떨어져 아파야 한다.”\_<오랑캐꽃이 핀다> 제7권 중에서.

책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갖가지 사례가 생생히 묘사돼 있다. 수준 낮은 우리의 자화상에 시시때때로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위로를 얻기도 한다. 한 목사의 열정과 인간애는 누구도 흥내 낼 수 없다. 그는 단순한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는다. 이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온전한 삶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친다.

“기빠하기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힘겹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로 시작한 외국인 노동은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합법’의 외피를 썼지만 외국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후진국형 제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한 목사는 “책 출간을 마냥 기빠하기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힘겹다”면서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자체 연구과제로 이 책들을 기록물로 엮고 철학적으로 해설한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명예교수는 “세계 경제력 7위에 오른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부각시키고, 한윤수 목사의 기록을 보면서 정략적 이해와 제국주의적 욕망이 결합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들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아픔을 보듬어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모범을 보이는 ‘동근 아시아’의 비전을 전망하게 되었다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한윤수 소장의 헌신을 <대한민국헌법>이 상징하는 ‘대한국민(大韓國民)’의 디딤돌로 삼자”고 제안한다.

홍 교수가 서울대 재학 시절 신림동에서 ‘겨레터야학’을 운영하면서 전국 야학생들의 글을 모아 온 것을 당시 출판사 ‘청년사’를 운영하던 한윤수 목사가 출간한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1980)도 《오랑캐꽃이 핀다》 출간에 맞춰 43년 만에 복간했다.

‘삼디돈말결해’

저자는 어느 인사 담당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돈말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디돈말결해’라고 했다. 외계어처럼 들리는 이 말은 우리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

자들의 현실을 축약한 말이다.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3D 업종에서 일하며, 돈은 적게 받고, 말(불평)이 없으며, 결근이 없고, 해고가 쉽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최하층에서 지탱하고 있으면서도 오랑캐 취급을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비꽃처럼 예쁘다. 봄의 전령인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올 준비를 할 때다. 이주 노동자들의 대명사도 ‘오랑캐꽃’에서 원래 이름인 ‘제비꽃’으로 불리기를 기대해 본다.

출판기념회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02) 2125-9700

---

### 《오랑캐꽃이 핀다》

한윤수 지음, 홍윤기 엮음. 전 10권. 각권 1만2000원. 박영률출판사. 2023년 2월 24일 발행.

###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한윤수 엮음, 6,200원, 청년사(1980), 복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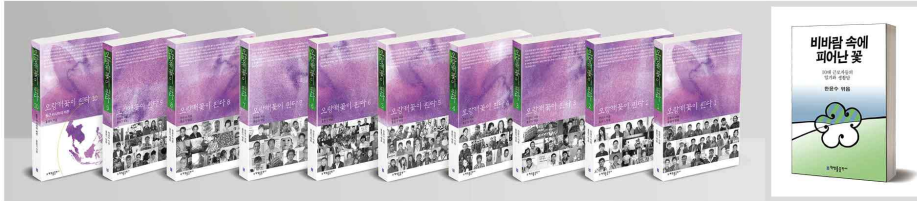
o.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념회 현장에서 위의 책 전권(총11권)을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o. 다음의 구글 링크를 통해 구입하면 10% 할인가(배송료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Juzuq5vp8WcqYvD45nJE4vuUP9bQ5fvNBucaHQYVclMMag/viewform?vc=0&c=0&w=1&flr=0>

o. 출판사에 직접 주문하여 구입하실 분들은 다음의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 《오랑캐꽃이 핀다》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구입 신청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한윤수 소장님의 《오랑캐꽃이 핀다》가 2월 24일 출간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기록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 사례 895편과 홍윤기 교수의 해설이 실렸습니다. 《오랑캐꽃이 핀다》 출간에 맞춰, 1980년 청년사를 운영하던 한윤수 목사가 출간한 10~20대 남녀 노동자들의 문집과 일기 모음집,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도 43년 만에 원본 그대로 복간합니다. 《오랑캐꽃이 핀다》는 정가 각 권 12,000원, 10권 세트 12만 원,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은 정가 6,200원입니다. 이 주문서를 통해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0% 할인해 드립니다.

### 구입하고자 하는 책에 표시해 주세요.(10% 할인가)

- |                                                     |                                                |
|-----------------------------------------------------|------------------------------------------------|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10권 세트 (108,000원)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6 (10,800원)  |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1 (10,800원)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7 (10,800원)  |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2 (10,800원)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8 (10,800원)  |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3 (10,800원)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9 (10,800원)  |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4 (10,800원)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10 (10,800원) |
| <input type="checkbox"/> 오랑캐꽃이 핀다 5 (10,800원)       | <input type="checkbox"/>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5,580원) |

### 성함, 전화번호, 책을 배송받을 주소를 적어 주세요.

성함 : \_\_\_\_\_ 전화번호 : \_\_\_\_\_

주소 : \_\_\_\_\_

책 선택 후 이 구매서를 제출하시면 출판사에서 책값과 입금 계좌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입금 후 책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전화 : 02-3700-1287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2901-04-144995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주문자 성함과 입금자명이 동일해야 합니다)